

대기업 '문어발 본능' 도졌다

재생타이어·곡수·두부까지 무차별 사업 확대

2006년 '고유업종' 폐지 여파... 中企 "죽을 맛"

대기업의 사업다각화로 자신의 영역을 잠식당해 한숨을 내쉬는 중소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대기업의 시장침투를 제한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2006년 12월 말로 완전 폐지된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재생타이어 뿐 아니라 골판지상자·곡수·두부·생선회·아스콘·어육연제품 등 한해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종

에서 대기업의 시장침투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두부시장의 경우 풀무원·CJ·대성 등 대기업들이 들어와 두부 한도를 더 주거나 콩나물 등 다른 제품을 엮어주는 '1+1' 판촉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문을 닫고 있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두부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

서 두부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고 영세업체만 망할 뿐"이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각축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보면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다 풀린 17개 업종에서 폐지 후 문을 닫은 중소기업이 지난해 8월 현재 97개에 달

했다.

반면 이 업종에 진입한 대기업 수는 7개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폐지 전 15.8%에서 20.0%로 4.2%p 증가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중소기업인들은 일정 정도 공감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의 사업의 인수·계시 또는 확장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수요감소로 나쁜 영향을 받을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업조정이 받아들여지지더라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2년밖에 늦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약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업종별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거나, 5년 이상 무기한으로 바꾸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똑같은 교통사고도 보험금은 다르다?

보험사 교섭력 따라 지급 금액 '천차만별'

보험관련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이 최근 자동차보험사별 평균 대인사고 보험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험사에 따라 주는 보상금이 달랐던 것이다.

▷보험금 채 차이 나나 =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대인 보험금은 크게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로 구성된다. 병원 치료비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들어간 돈이다. 합의금은 구성 내역이 조금 복잡해 위자료와 휴업 손해금, 식대나 교통비 등 기타 손해금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금 구성요소들의 지급액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부상등급'별로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다. 부상등급은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가장 심하게 다친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뉜다.

그럼 왜 보험사마다 평균 보험금이 다를까. 보험업계에선 결국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교섭력'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치료를 받으며 돈을 챙기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많이 주는 회사가 좋다? = 보험금을 많이 주는 보험사가 좋은 보험사냐의 문제는 순전히 자신이 가해자나, 피해자냐에 달렸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보험금이 커질수록 이득해 보험료에 그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좋을 리 없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짜게' 굴수록 아삭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보험금을 많이 주는 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를 골라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연합뉴스

"펀드수수료 인하 유도 판매보수 약관에 명시" 금융위 추진

금융위원회가 펀드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보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27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약관에 판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시해 판매보수가 추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해외펀드의 수익률 하락으로 펀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측은 판매보수를 받는 펀드들의 수수료가 올 들어 평균 0.3% 하락하는 등 수수료 인하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판매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경우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보기만해도 시원한 콜 비즈 패션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콜 비즈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보디페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원함을 연출하고 있다. 콜 비즈는 노타이+노재킷 패션을 일컫는 말로 여름철 시원한 의상 착용으로 냉방을 줄여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집값 오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 상승 전망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2.8%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1.7%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도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소형 저가주택 중심의 수요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매매값은 상반기 4.8%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2.1%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는 전국이 4.5%, 수도권이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도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판매풍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나 양도소득세 등 규제가 완화되면 4~4분기 이후 주택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전세가격도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수도권이 0.6%p 감소한 2.2%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상반기(2.0%)보다 낮은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일시적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요 감소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분양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주택수요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한국 경제성장률 4.4%"

JP모건 전망... 수출 호조 불구 소비 감소

JP모건 체이스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 입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 전망과 시장 전략' 세미나에서 "대의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박사는 "7년 전 전체 수출의 20% 수준이던 대(對) 미국 수출 비중이 작년에는 중국을 통한 수출을 포함하더라도 13~14% 수준으로 줄었다"며 "수출은 대의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역 다변화와 조선업 호조, 환율 효과 등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소비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약화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소비 증가율이 작년 4%대에서 올해 2.5%로 떨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재고율이 높은 편이며 기계수주도 폭락을 겪고 내려오고 있다"며 "작년 말까지 신정부 효과 등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았지만 현재는 줄어든다고 있어 단기적으로 투자가 경기를 떠받치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과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 위험 헤지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1,100원을 뚫을 힘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물가를 걱정하는 정부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정책과 관련,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지만 재정정책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다"며 "정부가 완만한 감세를 추진한 뒤 9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공시지가 4.5% ↑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m² 당 988만원 최고가

나주시 상승률 9% 가장 높아

전남지역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4.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남도내 토지 404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자가수준은 제곱미터당(m²) 평균 6천8천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중인 나주시가 9%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2012연세계박탕회가 개최되는 여수시(7.9%)와 나노단지가 조성되는 장성군(7.9%)이 다음을 이었다.

가장 낮게 상승한 지역은 0.9%가 오른 진도군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최고지가는 여수시 교동 275번지 등산용품 판매점과 순천시 남내동 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제곱미터당(m²) 4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일야로 제곱미터당(m²) 103원이다.

광주시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 2가 16번지(광주우체국) 토지로 제곱미터당(m²) 988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지역은 광산구 사호동 산 118번지로 제곱미터당(m²) 499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별로 단위면적(m²)당 가격을 조사해 5월 31일 결

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시군별로 최종 결정·공시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해외 카드사용 또 사상 최대

1분기 18억달러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상 원화 약세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결제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결제를 자제하게 되지만 해외 여행과 1인당 카드사용액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체 사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해외 사용금액은 18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2%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955.97원을 적용,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7천500억 원의 돈이 해외 신용카드 결제로 쓰인 셈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나경인터내셔널	무동파르호텔 조리사 직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29	062-231-1571
※한성MS	고객센터 상담원(주5일근무)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30	062-350-8860
※광주컴퓨터	영업직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523-6661
합스(이현의원/광주/전남)	운동치리사 어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974-1675
네오테크	사무실 견적 업무 및 영업관리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5/31	062-381-5040
(유)광주전력	소방설비(기계,전기) 비상주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361-2246
알에프네트웍스	전산 및 일반사무 지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385-6006
삼진MPS	GS유통스 여성공정 일반사무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2-558-3385
ING생명(본사)	[본사직영]TM고객상담원/주기연계출시-월300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6/02	02-3452-2612
※인현상사	정규직 매장판매 및 전산개통, 사무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2	062-524-0101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TM지점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6/02	062-360-5201
미래에셋생명-본사	[고객승인회원]제테크상담-변액,펀드분야(남/여)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6/05	02-3425-0477
※대명	설계팀에서 협력할 가족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5	062-670-0321
※금호월드	그래픽 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3	062-226-8471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한국인이 생각하는 명품 40選

아래아한글·롯데캐슬 삼성서울병원 등 뽑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품은 어떤 것들일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27일 '아래아한글'과 '롯데캐슬' 등 브랜드와 서비스, 디자인, 웰빙 등 4개 분야로 나눠 선정한 대한민국 명품 40가지를 발표했다.

KMAC은 1차 사전조사와 2차 소비자/전문가 추천을 받아 111개 후보 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만 20~50세 소비자 중 1년 이내에 해당 상품이나 그 분야의 상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3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명품을 선정했다.

사물명품 가운데 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은행의 '명품뱅크', 동양종합금융증권의 'CMA자산관리통장', KB국민은행 'KB플레이늄카드' 등이 선정됐다. 주거 부문에서는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링크웨어의 '아이나비'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과컴퓨터 아래아한글'이 뽑혔다.

명품서비스 중 건강검진 부문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건강과학센터와 서울대병원의 강남센터가,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Bankis'가 각각 선정됐다. /연합뉴스